



임 경 문*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이 전기야!” 처음 대학에 입학하여 과 모임에서 선배들이 가르쳐준 전기공학과 구호였다. 이제 전기과 졸업생으로서 사회생활도 하였고, 적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 다시 학교에 돌아와 박사과정중... 돌이켜 생각해보던 그동안 보아온 많은 전기인들은 정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회의 중요한 가슴이었으며, 기술과 학문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이켜 물어보면, 마음 한구석 늘 부끄럽고, 초라한 것은 왜일까?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가는 전기의 관련분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탐구가 아닌, “지금”에 안주하며 상대적으로 좁아져가는 왜소함. 그렇다 예전에 교수님께서 늘 들려주시던 말씀이 있었다. 학문은 성실을 바탕으로 넓고 깊게

하라고, 커다란 가슴으로 세상을 향하라고, 그래서 나역시 지금 이 글이 전기인의 한사람으로서 지난시간을 반추하는 녀드리가 되기 보다는 앞으로의 나에게, 또 수많은 후배들에게 작은 의미로 되길 바라기에 한마디, “커다란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이라고 다시 말하고자 한다. 가슴은 자유와 정의와 신념 그리고 정열과 용기와 사랑의 상징이다. 그래서 화가들은 예로부터 이들을 강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젓가슴에 엑센트를 두어 그렸다. 명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젓가슴을 노출시킨 것도, 『성아가다의 순교』, 『성바바라의 순교』를 그린 그림에서 집게로 성녀의 유방을 도려내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이유도 젓가슴이 자유와 신념과 정열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뜨리는 뜻에서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양보다 더 가슴과 마음이 밀착되어 있다. “가슴 아프게”, “쓰라린 가슴”, “찢기는 가슴”.....은 바로 마음의 아픔인 것이다. 가슴이 크다는 것은 포용을, 가슴을 편다는 것은 희망을, 가슴이 뻥다는 것은 흥분을, 가슴이 무겁다는 것은 우울을, 그리고 가슴을 나눈다는 것은 정을 뜻한다.

희비애로(喜怒哀怒)가 가슴속에 있고, 인의예지(仁義禮智)가 가슴속에 있다. 흉금(胸襟)을 튼다함은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눔을 뜻하며, 흉중백반병(胸中白斑病)은 병약이 뛰어난 사람됨, 흉중필묵(胸中筆墨)은 시문(時文)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 뿐 아니라 가슴은 클수록 좋다.

스스로의 그어버린 테두리속에서 자유케하는 가슴과 이 시대의 젊은 지성으로서 학문을 탐구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정의와 용기의 가슴. “나”는 “너”에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보고, 그 탐구의 노력에 어울리며, “너”역시 “나”를 보고 하나가 되어 미리 경계를 설정하여 닫아버린 가슴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가슴을 지녔는 자를 스스로 반문해 본다. 혹시 주위에 가슴을 움츠린 모습으로, 자기 마저도 담을 수 없는 굴레를 지닌채 어두운 모퉁이에 허물어져 즐고 있지는 않은가?

매번 우리 전기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담긴 학회지를 받아본다.

서로의 힘을 합하여 만들어진 전기인의 얼굴, 열면 가슴으로 격려하고, 충고하며, 수고하고, 서로 포용하며 나누는 전기인의 정열과 사랑이 담겨있는 학회지. 회지를 보면 언제나 새벽같이 일깨우는 전기인의 푸른 가슴들이 있고, 작은 가슴을 크게 키워주는 “전기인의 광장”이 있다.

이제 더욱 열린마음, 더욱 큰 가슴으로 진리를 담으며, 사랑으로 함께 하는 전기인이 되기를 바란다. 세계를 품을 커다란 가슴을 지닌 전기인이여 모두 같이 외쳐보자.

“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이 전기야! ”